

魚寺 大雄殿、法住寺 天王門 등 屋上에 남아 있는 것이 顯著한 例이고 절에 傳來된 個個의 離脫遺物도 여기저기 남아 있다고 傳聞되고 있다.

(註) 天沼俊一博士 續成壽樓 隨筆所載「朝鮮의 佛寺建築に於ける瓦釘의 寶珠」

聞慶 觀音里的 石佛과 石塔

秦 弘 燮

一、五層石塔

聞慶郡 聞慶面 葛平里 聞慶警察署 葛平支署構內에 아담한 五層石塔이 있다. 全高二·九m이며 覆鉢까지 남아 있다. 下臺는 中石을 二區로 區分하고 二枚의 甲石을 덮었으며 上臺와 各層 屋身、屋蓋石은 各各一石이다. 上臺 中石과 初層屋身の 各面은 二區로 區分되었고 二層부터는 隅柱形만 있다. 基壇 中石과 各層 屋身은 上促下寬으로 初層 屋身の 幅은 上端에서 五〇·五cm며 下端에서 五二·三cm이다. 屋蓋石 받침은 各層 三段이며 落水面的 傾斜가 아름답다. 相輪은 一石으로 된 露盤과 覆鉢이 남아 있고 徑二·五cm의 擦柱孔이 있다.

巨作은 아닐지라도 優麗한 作品의 하나다. 若干의 損傷이 있기는 하지만 完美한 形態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 石塔은 지금 있는 자리가 原位置가 아니고 約 五里 떨어진 山中에 있었던 것이다. 그 原位置는 同面 觀音里 佛堂앞이라 부른다. 西紀一九三六年 頃 賣却된 바 되어 解



聞慶五層石塔

體하여 一部는 벌써 서울로 移動된 것을 里人들의 反對로 가장 安全하다고 即 다시 盜難당할 憂慮가 없다고 생각한 駐在所 構內에 再建하였던 것이라 한다.

原位置는 一面 田이 되었으나 흙 밑에 八三cm 平方의 地臺石이 남아 있으며 그 後面에는 金堂址가 歷然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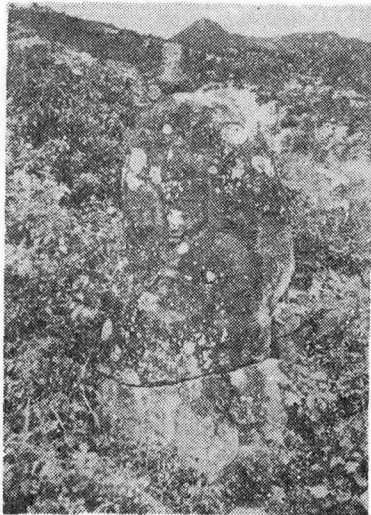
二、磨崖半跏像

前述한 五層石塔의 原位置에서 東쪽으로 約二〇〇m 地點에 이 半跏像이 있다. 岩石은 높이 約二·一m, 넓이 約一·一m, 두께 四三cm의 花崗岩이며 뒤는 扁平하다. 이 表面에 像高 約一·九m 頭高 約五〇cm, 肩幅 約六九cm, 膝幅 約八九cm의 像을 陽刻하고 頭上에 徑約八六cm의 頭光이 있다. 全面에 磨滅이 甚하나 大體의 形態는 알아볼 수 있다. 머리에는 三面花冠을 썼고 兩頰은 살이 적고 細眼 厚唇인데 古拙한 微笑가 確然하다. 右手는 右膝위에서 꾸부러서 外掌하여 턱을 받치고 左手는 左膝위에 얹힌 右足을 잡고 있다. 膝部以下는 褶裥이 있기는 하나 磨滅로 因해 明瞭하지 않고 따라서 臺座도 確實치 않다. 圓形頭光에는 化佛이 있는 듯하나 희미하다.

形態는 半跏의 像을 하고 있으나 三國期의 半跏像에 比하면 造型이 鈍하다. 上體나 두 팔의 肥大함과 肢體의 均衡이 不安全한은 自然時代의 下降을 意味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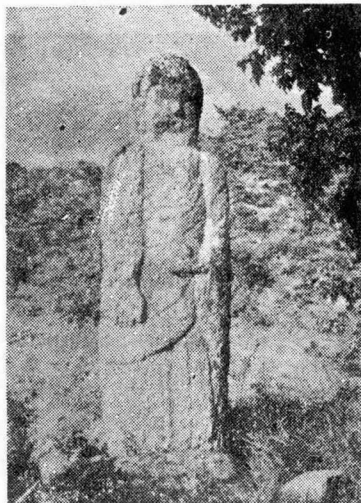
三、石造藥師如來立像

觀音里와 葛平里의 中間쯤 되는 地點에



聞慶磨崖彌勒半跏像

花崗石으로 圓刻한 藥師如來 立像이 있다. 全高三·三三m로 南向하고 있다. 頭部는 切斷된 것을 세멘트로 接續시켰고 鼻端을 亦是 세멘트로 補修한 顔面은 磨損되었으며, 肉髻도 똑똑치 않다. 通肩한 法衣가 무릎 위에서 굽은 變線을 보이면서 左右로 갈라졌고 그 밑에 裙衣가 처졌다.



聞慶 石造藥師如來立像

右手는 右側에 內掌하여 늘어뜨렸고, 左手로는 膝前에서 寶珠를 받치고 있다. 背面에도 衣紋이 보이 나 매우 희미하며 寶珠는 세멘트로 補修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 像은 巨大하기 는 하나 精刻이라 할 수 는 없다. 石質의 탓으로 磨損이 甚함도 本像의 外觀을 極히 損傷시켰다. 그러나 決코 拙作은 아니며 部分的으로 雄健한 風이 깃들고 있다.

右手는 右側에 內掌하여 늘어뜨렸고, 左手로는 膝前에서 寶珠를 받치고 있다. 背面에도 衣紋이 보이 나 매우 희미하며 寶珠는 세멘트로 補修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 像은 巨大하기 는 하나 精刻이라 할 수 는 없다. 石質의 탓으로 磨損이 甚함도 本像의 外觀을 極히 損傷시켰다. 그러나 決코 拙作은 아니며 部分的으로 雄健한 風이 깃들고 있다.

堤川の 模塼石塔 二基

鄭 永 鎭

一、長樂里 七層模塼石塔

忠北堤川驛下車 邑內에서 寧越行 道路를 따라 約二km 寧越郡 酒泉面으로 갈러지는 삼거리 右便 鐵道 넘어 발 가운데 몹시 破損되어 北쪽으로 기울어진 七層塔 一基가 現存한다. 이 곳 一帶를 塔內洞이라 하며 洞民들은 「蒼樂寺」라 하는데 塔周邊의 밭에서는 埋沒된 礎石

第一卷 第二號 第二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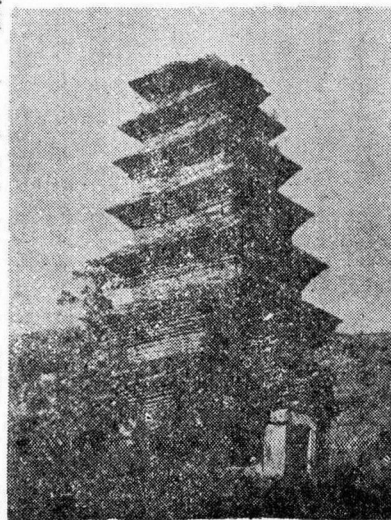
과 數 많은 瓦片을 發

見한다고 한다. 塔은 完全하였던 것이 約三〇年前 日人이 寶物을 竊取코자 下部를 破損시켜 現在와 같이 二層까지의 塔身 一隅가 무너진 것이다 한다. (洞民 李乃雨氏談)

이 塔은 一見 塼塔樣式을 보이고 있으나 塼築이 아니고 灰青色의 石材를 (塊石이라 함) 塼과 같이 長三〇—四〇cm, 厚五cm의 方形으로 切斷하여 生石灰 등을 使用함이 없이 築造한 手法으로 보아 三國末의 慶州 芬皇寺石塔系에 屬하는 遺構라 하겠다. 洞民들에 依하면 隣近 義林池 뒷산 龍頭山에서 이와 같은 石材가 많이 採掘된다 하며 이 塔의 解體 修理에 關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한다.

全高九·一m의 巨塔으로서 基壇部는 數個의 自然石을 다듬어 地臺石을 삼고 그 위에 塔身을 받고 있다. 初層은 四隅에 高一·三七m 幅二十一cm의 花崗岩 石柱를 세웠는데 東·西兩面은 模塼石으로 築造하였고 南·北兩面은 그 中央에 花崗岩으로 開閉式이 아닌 門扉 二枚를 달았으나 南面은 高一·三七m 幅一·〇八m의 「문틀」을만이 殘存하였고 北面은 門扉와 문틀이 具存한다. (門扉 二枚의 크기는 高八十五cm, 幅六十一cm인) 幅二m八〇cm의 初層에서 破損된 部分에 露出되어 있는 積心石은 自然石으로서 혹은 全缺 使用되지 않고 있다. 二層부터 七層까지는 比較的 完全하여 築造의 手法을 뚜렷이 觀察할 수 있으며 屋蓋받

침은 一·二·三層이 九, 四·五層이 八, 六, 七層이 七로서 各層 屋蓋의 四隅에는 모두 구멍이 뚫어져 있어 風磬을 달았던 痕迹이 엿보이며 七層 一隅에는 「쇠고랑」도 아직 殘存한다. 相輪部는 없으나 一邊七〇cm의 花崗岩의 方形露盤이 塔頂에 남아 있고 그 中心에는 直徑一七cm



長樂里 七層模塼石塔